

**Kit Morph(키트 모핑)** 기능은 한마디로 \*\*\*"리듬(박자)은 그대로 두고, 옻(사운드)만 0.1초 만에 갈아입히는 기능"\*\*\*입니다.

이 기능은 사용자가 '샘플 고르는 시간'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**AURA V3**의 작업 속도를 **10배 빠르게** 만들어줄 핵심 기능입니다.

## **Kit Morph**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나요?

### 1. 상황:

- 사용자가 스텝 시퀀서로 킁-치-따-치 비트를 찍었습니다.
- 그런데 드럼 소리가 너무 촌스럽거나, 현재 곡 분위기랑 안 어울린다고 느낍니다.
- 기존 **DAW** 방식: 킥 샘플 하나하나 검색해서 바꾸고, 스네어 다시 찾고... 30분이 걸립니다.

### 2. **Kit Morph** 사용:

- 시퀀서 옆에 있는 **[Morph]** 버튼이나 다이얼을 돌립니다.
- 결과: 찍어놓은 "쿵-치-따-치" 박자는 완벽하게 유지되면서, 드럼 소리(**Kick, Snare, Hi-hat**) 세트가 통째로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.

## 왜 이게 'AI 기능'인가요?

단순히 랜덤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.

- 맥락 인식 (**Context Aware**): 현재 프로젝트가 \*\*\*"Lo-fi Hip-hop"\*\*\*이라면, **Kit Morph**를 눌렀을 때 뜬금없이 시끄러운 '락 드럼'이나 '테크노 드럼'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
- 지능형 매칭: AI가 현재 곡의 BPM과 분위기를 파악해서 \*\*\*아, 이 곡에는 좀 더 먼지 쓸인 듯한 빈티지 드럼이 어울리겠네\*\*\*라고 판단하고, 그에 맞는 샘플 조합(**Kit**)을 가져와서 입혀줍니다.

## UI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?

방금 만드신 \*\*스텝 시퀀서 이미지의 좌측 상단(트랙 헤더 위쪽)\*\*에 작은 **[Next Kit >]** 화살표 버튼이나, **DNA 아이콘**으로 배치하면 됩니다.

요약하자면:

- 사용자: "박자는 마음에 드는데 소리가 별로야."
- **Kit Morph**: "그럼 이 소리는 어때? 아니면 저건? (딸깍, 딸깍)"
- 가치: "샘플 디깅(소리 찾기)의 고통 해방"

이 기능이 있으면 초보자도 버튼 몇 번 클릭으로 "어? 소리가 갑자기 프로 같아졌네?"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